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가정과 교육공동체의 고교학점제 준비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주[†]

강원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reparation for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of the Home Economics Education Community through the Analysis of Operation Case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Research School

Han, Ju[†]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ways to prepare for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the home economics educational community through the case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research school operation. To this end, the operation process of H high school in Gangwon-do, which operated a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2019, was monitored for 5 months, and survey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to determine the operation of the curriculum. Suggestions based on the case of H high school's oper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for home economics educational community are as follows. Home economics teachers should make active efforts to provide attractive and meaningful home economics lessons to their students by improving instruction and assessment, and implementing a variety of elective courses within the subject of home economics, including collaborative online curricula. Home economics teacher communities and related associations should build a solid network that connects local home economics subject research groups, share information related to curriculum operation, and use it as a channel for disseminating class research results. Home economics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should innovate the curriculum to help prospective teachers develop the ability to guide multiple classes in line with the changing teacher training policy, and develop and provide high-quality online and offline programs for field teacher re-education.

Key words: 가정과 교육공동체(home economics education community), 가정과교육(home economics education), 고교학점제(high school credit system), 기술·가정교과(technology & home economics subject), 선택과목(elective course)

[†] 교신저자: Han, Ju, 1 Kangwondeahak-gil, Chuncheon-si, Gangwon-do, 24341, Republic of Korea
E-mail: zoz20202@kangwon.ac.kr

본 연구는 2019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This study was supported by 2019 Research Grant fro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본 연구 결과로 제시된 양적 및 질적 분석 데이터는 「2019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강원 중소도시 공립 및 읍면지역 고등학교」(Han, Kim, Park, & Lee, 2019)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I. 서론

우리 사회는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술의 진보를 토대로 사회구조 및 경제 시스템, 직업 세계 등 삶의 전방위적 영역에 걸쳐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사회의 특징과도 연결되는데, 여러 학자들이 언급하는 미래사회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로 다양성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도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7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추구해왔으며, 특히 2025년 전국 고등학교에서 시행될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 보장을 실현하려는 최초의 제도로 볼 수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제도(Ministry of Education, 2021)이다. 이는 학생의 졸업 요건을 규정하는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운영 체제, 대학입시제, 수업과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 등 학교 교육 생태계의 전반적인 변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의 현장 도입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과 갈등이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국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을 일괄적으로 이수해온 데 비해 고교학점제가 표방하는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교과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새로운 교과가 신설되어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속으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림과 동시에, 학생들의 선택이 저조한 교과에 개설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히 대학 입시와 관련성이 낮은 과목이나 과목별 필수 이수단위가 지정되지 않은 생활·교양 교과(군)에 속한 과목의 경우에 고교학점제는 기회보다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 크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선행연구(Jin, 2017; Lee, 2017; Lim, 2017)들은 고교학점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현실적 제약을 극복할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학교의

개별 상황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명료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고교학점제 도입이 교육의 질 제고를 필연적으로 동반하지는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연구들은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따른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이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 가능성에 대해 의미 있는 제언을 하였다. Kim과 Seo(2018)는 고교학점제가 기존의 공급-선택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설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Kim, Kim, Ham과 Han(2017)은 고교학점제가 단순히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넘어서 실질적인 수업 평가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총 교과 이수단위인 180단위 중 필수 이수단위 94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86단위를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자율편성단위로 정해놓고 있다. 교과는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의 네 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기초, 탐구, 체육·예술의 세 교과 영역은 세부 과목별로 필수 이수단위가 정해져 있는 반면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교과가 속한 생활·교양 교과 영역의 경우 각 과목별 필수 이수단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술·가정 교과는 학교나 학생의 선택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여부가 결정되며 학생은 기술·가정 교과를 이수하지 않아도 생활·교양 교과 영역 내에서 필수단위인 16단위를 채우면 졸업할 수 있다.

기술·가정 교과는 제7차 교육과정, 2007 개정교육과정 시기에 필수교과의 위상을 갖는 국민공통기본교과로 운영되었다. 2009 개정교육과정 시기부터는 국민공통기본교과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기술·가정 교과는 실질적으로 선택교과의 성격을 갖게 되었지만 다행히 이전 교육과정 운영의 관성에 의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4-6 단위를 편성해왔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선택권이 점차 강조되면서 입시와 관련성이 낮은 기술·가정 교과 시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Lim(2018)이 일반 고등학교 기술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례를 분석하면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전국에서 기술·가정 교과를 편성한 학교 수는 매년 100개 이상씩 꾸준히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에서 기술·가정 교과의 편성이 줄어들

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Lee(2017)가 고교학점제의 도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지적한 내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Lee(2017)는 다른 나라의 고교학점제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교학점제와 2015 개정교육과정의 맞물리면서 극단적인 과목 편식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보았다. 실제로 학점제를 최초로 시도했고, 현재도 고교학점제의 모범적 확산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되는 서울 도봉고의 경우, 2-3학년 교육과정을 학기별로 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는 모든 과목을 펼쳐놓고 학생들의 완전한 선택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고교학점제는 외국의 사례에 비해 교과가 훨씬 더 극단적 형태로 편중될 수 있으며, 사실상 2015 개정교육과정은 교과 간 극심한 불균형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일상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를 통한 추론능력과 가치판단에 따른 의사결정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와 ‘가정생활’ 분야는 개인과 가족이 전 생애에서 직면하게 될 생활의 문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행복한 가족관계와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가정생활과 관련된 기술적, 의사소통적, 반성적 행동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사회인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할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 생애에 걸쳐 가족,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와 학생들의 기술·가정 교과 선택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기술·가정 교과의 입장에서 기회보다는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전국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를 운영해왔다. 연구학교는 새로운 교육방법이나 제도 등을 도입하고자 할 때 이를 실제 현장에 시범 운영해보으로써 실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의 현장 적합성과 학교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고교학점제의 학교 현장 안착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더불어 고교학점제가 기존에 편성된 교육과정의 지형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개별 교과 선택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반응도 알아볼 수 있기에 앞으로의 교과편성의 윤곽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특히 기술·가정 교과의 경우,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충족하고 청소년 발달을 위한 보편적 교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고교학점제의 운영과정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2019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H고의 고교학점제를 운영 사례를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 시 가정과 교육공동체의 준비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공동체란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사회학 용어로, Han(2018)에 따르면 공동의 이해관계, 소속감, 협동 등을 그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가정과 교육공동체’는 ‘가정과 교육의 지속과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와 연대의식을 가지고 협력하는 개인들의 총합’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고등학교 가정과 선택 교육과정 편성 방안을 탐색한 Park(2017)의 연구에서 대안가정학회, 가정과교육학회, 각 시도의 가정과교육연구회, 전국가정 교사모임 등 가정교과 관련 단체 및 개인을 가정과 교육공동체로 지칭한 것과 그 범위가 다르지 않다.

H고의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모니터링 과정은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소요 인프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기에 개별 교과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력이나 그 변화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교육과정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개별 교과의 운영 내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H고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가정과 교육공동체에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고교학점제 실행에 대한 선행 연구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2007 개정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현재의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학습자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개별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국내 학술지 검색 사이트(riss4u)에서 ‘고교학점제’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고교학점제 실행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는 2011년 이후로 확인된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는 ‘학점제’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같은 해 발표된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에 따르면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영어와 수학 과목에서 ‘무학년제·학점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학점제 도입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다룬 Gu와 Namgung(2011)의 연구, 캐나다의 중등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생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실현방안을 탐색한 연구(Han, 2011)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학점제가 안착되지 못했고, 이에 대해 Kim(2017)은 학생의 ‘선택’과 진로 집중과정을 강조했던 2009 개정교육과정 시기에 도입되었던 고교학점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었던 탓에, 기존의 문·이과 분반 체제에 다른 ‘과정제시행’ 체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유아무야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 관련 연구가 활발해진 것은 2017년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처음에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 및 선결과제, 도입 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제도적 논의를 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Hong(2018)은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과목이수요건, 학년진급요건 및 졸업요건,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전거함으로써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실행되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 정비의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Lee(2017)는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그 취지나 계획과는 달리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역할들을 없애거나 의도치 않은 여러 문제점을 낳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현재처럼 입시를 중심으로 서열화 된 고교체제, 일류대 입학이 유일한 교육목적이 된 고등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결국은 서열화 된 학교 내 교육과정을 정당화하는 역할 이상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고교학점제 시행 시기가 가까워지고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의 사례들이 축적됨에 따라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고교학점제의 현장 정착 과정이나 구체적인 제도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Kim, Hong, Chio, & Kwon, 2019; Lee, 2018; Lee & Paik, 2019; Woo, 2019a, 2019b)을 알아본 연구,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운영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문제점이나 시행방안 등을 분석한 연구(Lee & Park, 2020; Seo, 2020) 등이 대표적이다. 위 논문들을 연구 결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ee(2018)는 고등학교 교사 1,600여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실행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알아본 결과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학점 이수단위 조정, 학교 내에서의 과목 선택권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평가의 측면에서는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교사별 평가를 실시하기를 요구하였다. Kim 외(2019)는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교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이수단위를 152학점 이상 180학점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 역시 단위 학교에 편성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교 유형별로 차별화된 고교학점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Woo(2019a)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선결조건, 외적환경개선, 운영방식이라는 세 가지 변인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실행과 정착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고교내신 절대평가, 교사별 학생평가, 대입 수능 영향력 축소 등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선 교사들의 참여의지, 학교장의 지도성, 학생들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었으며, 세 번째는 교과목 영역별 다양한 수준의 과목개설, 재이수(F)와 유급제도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외에도 교실 수 등의 물리적 수업 환경과 타 교육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등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Woo(2019b)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담당교사와 보통교과 담당 교사들의 위 세 가지 변인에 대한 인식 차이도 조사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전문교과 담당교사들이 보통교과 담당 교사들에 비해서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선결조건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외적 환경 개선과 운영 방식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Lee와 Paik(2019)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82개교의 1,2학

년 학생을 대상으로 과목 선택권 확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교육기대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형편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정도와 자신의 적성 및 흥미 정도를 높이 평가하였다. 과목 선택의 이유로는 대학진학 희망 계열과 적성 관련성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내신 성적 산출에 유리한 과목, 쉽고 부담 없는 과목은 이보다 낮게 나타났다.

Lee와 Park(2020)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관련한 교육부 및 전문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연구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학교 운영의 성과와 과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의 성과는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확대, 진로지도의 내실화, 학교 구성원간의 협력과 교류, 학교 공간 개념의 확대와 유연화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중학교 진로교육과의 연계, 교사 연구시간의 확보 및 협력체제 구축, 평가의 신뢰도 확보, 교육인력 다양화에 따른 제도 변화, 다양한 웹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 연구로는 Seo(2020)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를 운영한 담당 부장 교사 면담을 통해 정책의 도입-수용-실행-개선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고등학교 학교 문화, 교사의 업무 변화, 학생의 변화 등을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다학년·다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교원 양성의 필요성, 지역 대학 입시 전형의 변화 등을 제안하였다.

가정과교육에서도 최근 선택과목 및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사와 전문가의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Kwon & Lim, 2020; Park, Lim, Kwon, & Lee, 2020)와, 선택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구체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연구(Kim & Heo, 2021; Yu, Baek, Ju, Han, & Park, 2021)들이 이루어졌다. Park 외(2020)의 연구결과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기술·가정 교과의 교육과정 편성 시수와 교사수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진로선택 과목을 조정하고, 선택과목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하며 평가방법 및 적용에 대한 연수를 제공하는 것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Kwon과 Lim(2020)의 연구에서도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선택과목에 대한 확대를 요

구하고 있었으며,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등 교육은 물론 대학 전공과의 연계성까지 고려하여 선택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목과 관련하여 Yu 외(2021)는 가정교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를 실시하여 고등학교 가정교과(군)을 위한 18개의 선택과목명과 과목 개요를 구조화하여 제시하였다. Kim과 Heo(2021)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가정과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및 선택과목 체제 탐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가정과 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새롭게 정립할 것과, 선택과목 개발에 있어서 과목의 매력도와 필요도를 조화시키고 대학의 전공체제와 연계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 실행에 앞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H고의 운영 사례를 문헌 조사, 설문 조사, 면담의 방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가정과 교육공동체가 각각, 그리고 함께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할지 그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지역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H고의 실행 과정을 2019년 6월 25일부터 11월 말까지 약 5개월간 모니터링 하면서 아래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1. 문헌조사

H고의 고교학점제 준비 및 실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학교 운영 계획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계획서, 선택과목 설문결과, 학생들에게 배부한 과목선택 안내서, 교사들의 수업 및 평가자료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Table 1)참고).

2. 설문조사

H고의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Table 2>의 내용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2019년 9월 16일~25일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총 8명의 교사, 152명의 1, 2학년 학생, 29명의 학부모가 응답하였다.

3. 면담

H고의 고교학점제 준비과정,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법, 진로-학업 설계 지도 방안, 수업 운영 및 과정 중심 평가 현황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직접 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사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Table 1. List of literature materials collected from H high school

No	List of literature materials
1	2019 H high school education plan
2	High school credit system promotional video produced by H high school
3	'Elective Course Guide' led by the homeroom teacher and a document explaining the subject for each subject
4	Teacher training materials, parent training materials
5	Questionnaire for evaluation of research school (school self-developed)
6	Records of student observations or interviews (career education day events, lectures, elective course guides, subject descriptions, etc.)
7	Class-evaluation data for each subject (representative subject)
8	Records of interviews with teachers (related to training on high school credit system)
9	H high school's self-conducted results of a survey on the recogni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by students (Excel file)

Table 2. Questionnaire organization by survey respondent

Questionnaire content	Number of questions	Response type	Respondents		
			Students	Parents	Teachers
Basic information respondents'	5	Multiple choice	○	○	○
Awareness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8	5 point Likert	○	○	○
Awareness of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a student-elective curriculum	2	Open-ended question	○	○	○
	2	Open-ended question	○	-	-
Support required for elective courses determination	1	Multiple choice	○	○	-
Considerations in determining elective courses	1	Multiple choice	○	○	-
Class satisfaction	1	Multiple choice	○	-	-
Reason for class satisfaction	1	Open-ended question	○	-	-
Reasons for dissatisfaction with the class	1	Open-ended question	○	-	-
How student elective curriculum is organized and operated	5	Open-ended question	-	-	○
Difficulties in organizing and operating student-selective curriculum	9	5 point Likert	-	-	○
Strengths of the curriculum operation of this school	1	Multiple choice	-	-	○
Weakness in the operation of the curriculum of this school	1	Open-ended question	-	-	○
Changes in the oper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9	5 point Likert	-	-	○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1	Open-ended question	-	-	○

교무부장 1명, 교육과정 부장 1명, 교육과정부의 계원인 일반 교사 2명(수학전공교사 1명, 일반사회전공교사 1명)이며, 학생의 경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 인근학교의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교사의 추천을 받아 4명을 선정하였다. 직접 면담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3개월 이상 진행한 시점인 2019년 7월 중순(7월 4일)과 학생들의 선택과목 희망조사가 종료된 10월(10월 1일), 총 2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외에 연구에 필요한 질문이 있을 때에는 교사들에게 비정기적으로 전화면담을 요청하여 연구학교 진행현황을 파악하였다.

교사 면담을 위해 연구학교 운영측면, 학교 배경,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운영 환경, 기타의 여섯 가지 카테고리의 24개의 문항을 제작하였고, 학생 면담 질문지는 선택형 교육과정 경험 및 H고의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면담 질문 중 대표적인 내용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IV. H고의 고교학점제 운영 내용

1. H고의 학교 배경

H고는 강원도 〇〇시, 농산어촌 소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이다. 1966년에 개교하였고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로 설치하고 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광업 도시에서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A리조트가 위치하고 있어 ‘A 원정대’ 등 각종 해외 체험활동 지원 등의 교육적 혜택이 있다.

학년별로 6개 학급이 있고 전체 학생 수는 444명, 교직원은 61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 교원은 43명이다.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 활동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편이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높은 편이다. 또한 가정 내에서의 학습 환경이 열악하여 학교 의존도가 높다.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은 부족한 편이지만 관내 중

Table 3. Interview question examples for teachers and students

Interviewee	Interview question examples	
Teac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agement aspects of a research sch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at made H high school promote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research school? - Tell me specific procedures for the student's curriculum demand survey. What do you think will be improved or supplemented in the demand survey process? - What are the difficulties in the division of work in the operation of the research school? Please tell us about any improvements. • School backgro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cording to the SWOT result analyzed by H high school, parents seem to have anxiety and distrust in the high school grading system.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reason? • Compilation of curricul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causing students to have free time? Is the classroom environment, self-directed learning, etc. that have been prepared for this purpose useful? - How much did the students' choice of subjects be reflected? Which subjects do students prefer? • Curriculum ope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ou said you have operated a joint curriculum of +α units in addition to 204 units. How many students participate in this program and how are their satisfactions? - Why did you create a timetable in which the three groups rotate in order to run a student selection-centered curriculum, and what are the difficulties in organizing the timetable? • Curriculum operating 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w do you arrange transportation for students to operate the joint curriculum? 	
	Stud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at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deciding which subject to choose? - Are you satisfied with the application process and results for the optional courses? - If you are unable to complete the selected subject, how would you like to make up for it? - Is there anything you would like to request from the school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학교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대다수가 H고로 진학하기 때문에 학생 간 학력 격차는 비교적 큰 편이다. 무엇보다 00시에 있는 유일한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점에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이다.

H고는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신청하여 2019년에 2년차, 2020년 3년차 연구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연구학교는 주로 교육부에서 예산 등을 지원해주고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의 적합성을 테스트 하는 성격을 띤다. 처음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신청하게 된 동기는 학교 구성원 전체의 필요나 자발적인 희망이라기보다, 몇 명의 교사들의 제안에 힘입어 추진되었다. 운영 2년차인 2019년에는 교원 진출·입 등으로 연구학교 신청했던 해와 교사 구성이 달라진 상태로, 연구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보나 자발적 동기가 없는 교사들에게도 업무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점에서 고충을 느끼고 있었다.

H고는 우선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기존의 교무부에서 교육과정 업무를 분리하여 ‘교육과정부’라는 업무 조직을 신설하였고, 그 아래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실수업개선분과, 학습상담분과, 평가 및 분석분과를 편성하고 교사를 배정하여 고교학점제의 기본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추가로 할당된 고교학점제 업무 외에 기존의 업무 분장에 따른 고유 업무도 동시에 담당해야 하고, 연구학교 업무를 전담할 인력은 별도로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교육과정 부장, 교무부장의 업무 협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협조는 정말 어려운 편입니다. 업무 담당자 일이 너무 많아요. 연구학교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학생들 진로에 도움이 되고 수업도 좋아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 (중략)... 학교를 믿고 좀 기다려 줘야 하는데, 너무 단기간 내에 그동안 했던 실적을 내놓으라고 하고, 갑자기 누가 컨설팅 방문한다고 하고, 또 결과 보고서를 내라고 하다 보니 자료를 취합하고 서류 만드는 데 에너지를 쏟느라 수업 준비를 못합니다. 이 연구학교도 처음에는 연구학교 진행하는 동안 1년에 1명씩 교사를 증원해주기로 했는데, 1년에 1명씩 3년간 3명 증원되는 것이 아니라 첫해에

만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지원이 축소되었어요.

- A부서 부장교사 면담 (2019. 7. 12.) -

무엇보다 연구학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부나 지역교육지원청의 지원이 아직 원활하지 않은 점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A부서의 부장교사는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에, 운영에 따르는 어려움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학교사업은 운영과정에서 단기간에 해당 과제에 대한 성과를 보고서 형태로 여러 번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 정기적으로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은 오히려 교사의 업무량을 증가시켜 수업 준비에 투입할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점을 지적하였다.

H고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진로 상담 업무를 위해 담임교사들의 기존 업무를 대부분 비담임 교사들에게 분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 담임교사를 모두 학년부로 배치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업무를 교무부에서 분리시켜 교육과정부를 신설하는 등 기존의 업무 조직을 개편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교사들은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담임교사와 비담임 교사 모두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기존의 업무가 어느 부서로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무 업무 조직이 안정될 때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진로 상담에 담임들이 열중할 수 있도록 담임들은 수업과 생활교육, 상담에 치중할 수 있는 학년부 체제를 이루었고 비담임 선생님들이 학교의 행정적 업무를 전담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교육과정부와 같이 일이 많은 부서를 자처하는 교사가 거의 없다는 문제가 있으며 H고처럼 교사 정원이 적은 학교는 행정 업무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맡을 수밖에 없고 선생님들이 2학기가 되자 번 아웃(소진, burn out) 현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A부서 부장교사 면담 (2019. 10. 20.) -

고교학점제의 당사자들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H고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직원 연수를 6회 이상, 학생대상 연수를 5회, 학부모 대상 연수를 4회 실시하는 등, 구성원들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2.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가. 교육과정 편성 내용

H고의 교육과정 편성은 교과영역 간 과목 선택형으로, 기초

교과영역은 학교에서 지정하고, 탐구 교과영역과 체육·예술 교과영역, 생활·교양 교과영역에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었다. 보통교과 외에도 학생 희망에 따라 전문교과 과목인 ‘체육전공실기기초’, ‘러시아어 회화’, ‘연극의 이해’도 개설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 수요조사에서 ‘여행지리’의 11개 과목이 소인수 과목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인수 과목도 개설하기로 하였으나 ‘여행지리’의 경우 교원 수급의 문제로 3학년(2020년도)에 개설하기로 하였다. H고에서 수차례의 수요 조사 결과 편성된 2019학년도 2학년(2018년 신입학생) 교육과정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H high school 2019 student choice-oriented curriculum schedule (2nd grade)

구분	교과 영역	교과(군)	과목		기준 단위	운영 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이수 단위	필수 이수 단위	
			구분	과목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학교 지정	기초	국어	공통	국어	8	8	4	4							
			일반	문학	5	4			4						
			일반	독서	5	4				4			24	10	
			일반	언어와 매체	5	4					2	2			
			일반	화법과 작문	5	4					2	2			
		수학	공통	수학	8	8	4	4							
		일반	수학I	5	4			4				20	74	10	
		일반	수학II	5	4				4						
		일반	확률과 통계	5	4				2	2					
		영어	공통	영어	8	8	4	4							
	일반	영어I	5	5			5					24	10		
	일반	영어II	5	5				5							
	일반	영어독해와 작문	5	6						3	3				
	한국사	공통	한국사	6	6	3	3					6	6		
	(기초) 소계							15	15	15	15	7	7	74	74
	탐구	사회	공통	통합사회	8	6	3	3					6	10	
			공통	통합과학	8	7	3	4					9	15	
			공통	과학탐구실험	2	2	1	1						12	
	체육·예술	체육	일반	체육	5	4	2	2							
			일반	운동과 건강	5	4			2	2			10	10	10
진로		스포츠 생활	5	2					1	1					
일반		음악	5	4	2	2					8	8	10		
일반	미술	5	4					2	2						
생활·교양	기술·가정/교양	일반	기술·가정	5	5	3	2					7	7	16	
		일반	진로와 직업	5	2	1	1								
(필수) 소계							30	30	19	19	8	8	114	114	

Table 4. Continued

구분	교과 영역	교과(군)	과목		기준 단위	운영 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이수 단위	필수 이수 단위
			구분	과목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	국어	진로	심화국어		5	6								
			실용국어		5	6								
	수학	일반	미적분		5	6					택6	택6		
		진로	기하		5	6					3*3	3*3		
	영어	진로	영어권문화		5	6								
		진로	실용영어		5	6								
학생선택	사회	일반	한국지리		5	6								
		일반	윤리와 사상		5	6			택3					
		일반	세계사		5	6			3*3					
		일반	정치와 법		5	6			택3					
		일반	생활과 윤리		5	6								
		일반	경제		5	6								
		일반	동아시아사		5	6								
		일반	사회·문화		5	6								
	탐구	일반	세계지리		5	6								
		진로	여행지리		5	6								
		진로	사회문제탐구		5	6								54
		일반	물리학I		5	6								
		일반	화학I		5	6								
		일반	생명과학I		5	6								
과학	일반	지구과학I		5	6									
	진로	물리학II		5	6									
	진로	화학II		5	6									
	진로	생명과학II		5	6									
	진로	지구과학II		5	6									
	전문	체육전공실기기초		5	6									
체육	체육	전문	체육전공응용		5	6								
		전문	체육전공응용		5	6								
예술	예술	진로	음악감상과 비평		5	2					택1	택1	2	
		진로	미술감상과 비평		5	2					1	1		
생활 교양	제2외국어 /교양	일반	중국어I		5	4			택1	택1				
		일반	일본어I		5	4			2	2				
		진로	중국어II		5	4					택1	택1		8
		진로	일본어II		5	4					2	2		
	일반	실용경제		5	2									
	일반	보건		5	2					택1	택1			
	일반	심리학		5	2					1	1		2	
	일반	교육학		5	2									
(자율) 소계							0	0	11	11	22	22	66	
교과 계							30	30	30	30	30	30	180	

사회
과학
1
과목
이상
필수
이수

기술·가정 교과와 가정과, 학교 지정과목으로 1학년 1학기 3단위, 1학년 2학기 2단위로 편성하고 있었다. 교사 시수 문제로 같은 학년의 통합과학 과목이 1학기 3단위, 2학기가 4단위로 편성되었기에 학기 당 총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기술·가정교과가 1, 2학기의 단위를 다르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일반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에 따르면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에서 총 16단위를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데, H고는 7단위를 학교지정으로, 10단위를 학생 선택으로 편성하였다. 학교 지정으로 기술·가정 교과 5단위를 이수하고 있으나 교사의 경우 표시과목 '가정' 자격증을 가진 가정과 교사가 없어 기술 전공 교사만 있는데다가 남학교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제로 수업은 '기술의 세계' 분야의 내용으로만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10단위의 학생 선택과목은 기술·가정교과가 아닌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와 교양 과목(실용경제, 보건, 심리학, 교육학) 중에서 선택하도록 있어서 학생들은 실제로 가정 계열의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학생들의 과목 선택 절차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2018학년도 입학자를 대상으로 2018년에 선택과목 수요 조사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강원도교육청의 컨설팅을 받았고 이에 따라 편제표를 10회에 걸쳐서 바꾸었다.

작년에 1학년 부장을 하면서 선택과목 수요 조사를 진행했어요. 수요 조사는 4회에 걸쳐서 하고 편제표를 10회에 걸쳐서 바꾸었는데, 이 일을 1년 내내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과목을 많이 늘여놓고 학생들이 적게 선택한 과목은 쳐내면서 다시 수요조사를 했지요.

- B부서 부장교사 면담 (2019. 7. 12.) -

2019학년도 입학자 대상으로는 2차에 걸친 수요 조사와 2차에 걸친 수강 신청이 있었다. 학생들이 과목을 변경할 경우는 교과서 신청 전까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교과서를 개별 구입하도록 하였다.

교육부의 경우 수강 신청 변경을 대학교처럼 학기 시작 1,2주 후에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메뉴얼을 주었으나 학생들이 교사를 보고 변경하는 경우도 생겨 반편성이 정해지기 전까지 수강 신청 변경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변경하는 경우는 담임선생님의 상담 후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B부서 부장교사 면담 ((2019. 10. 20.) -

학생들의 과목 선택 결과는 대체로 반영되었다.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은 학교에서 지정해 주기를 원했고 관리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학생들이 수능 위주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은 진로와 등급에 의해 좌우된다고 부장 교사는 생각하고 있었다. 즉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 선택을 하면서도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 뚜렷하지 않아 과목 선택에 어려움을 갖는다는 교사 의견도 있었다.

학생들이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고 왔는데 진로를 제대로 생각하고 오지 않아요. 자유학기제 거쳐 온 아이들이 여전히 자기 진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있어요.

- A부서 부장교사 면담 (2019. 7. 12.) -

학업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는 고교학점제에서 과목 선택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즐거워질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개설된 과목이 학생 진로나 대학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되어도 교사가 개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학에서 요구되는 전통적인 과목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하는데, 재미있고 흥미로운 과목에 집중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개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과목 개설을 요청하다보니, 선생님 개개인의 세부 전공까지 찾아가며 소인수 과목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사가 과목 선택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안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

과학을 어려워하거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새로운 과목을 듣게 되요 생활과학, 융합과학 이런 거요. 이것을 듣는 게 그다지 (대입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대입에는 **1, **2 과목이 더 도움이 되는데, 학생들은 그걸 모르니까요. 과학이 싫어서 그런 줄은 알지만, 그리고 상담을 여러 번 하고 해도 학생들이 대입보다 현재에 충실하게 하려고...

- 김** 교사 면담 (2019. 7. 12.) -

소인수 학급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수강 학생 수에 의해 폐강을 할 것을, 교사들은 교원 수급에 의해 폐강을 결정할 것을 원하였다. 이에 따라 H고는 ‘13명 이하 폐강 고려’라는 나름의 규칙을 정하고 준수하고자 하고 있었다.

수강 신청의 폐강 기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학생들은 수강 학생 수, 교사의 경우는 교원 수급을 첫 번째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과목 수요 조사 결과 13명 이하는 폐강 고려 대상 과목이며 교과 협의회를 통하여 과목 개설 여부를 최종 결정짓고 학생들에게 통보합니다. 물론 13명 이하이지만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 개설하거나 혹은 과목 조정 또는 교과 시수를 위하여 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13명 이하이지만 2학년엔 ‘체육전공실기기초’ 과목을 개설하였고 차기년도는 3학년엔 ‘여행지리’, ‘수학과 제담구’ 등을 개설합니다.

- B부서 부장교사 면담 (2019. 10. 20.) -

H고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여러 차례 수정 과정을 거쳐서 편성되었다.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절차를 정교화 하였고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 하였다. 나름의 폐강 기준도 선정하였지만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되도록 많은 과목을 개설하고자 하고 있다.

다. 교육과정 운영의 특징

H고는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하여 타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교내에서는 블록타임 시간표를 운영하였

다.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로서 과목안내서를 제작 및 보급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통한 진로 교육, 의무 상담과 자발적 상담 실시, 과목박람회 운영, 학생 개별 진로 로드맵 작성 등으로 상담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었다.

(1) 타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H고는 타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고교학점제 연구 학교의 두 번째 목표로 선정하였다. 대부분의 단위학교 단독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1학기에 일시적으로 타학교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꿈 더하기 공동교육과정을 지역별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학생들의 경우는 평가에서 과목별 석차 등급이 없이 성취 수준만 제공하여 학습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이에 2019학년도 1학기에 ‘간호의 기초’ 과목은 H고에서 운영하고 ‘실용경제’ 과목은 J여자고등학교에서 운영하여, 두 학교 학생들이 모두 수강할 수 있도록 공동교육과정을 설치하였다.

1학기에 공동교육과정을 했었어요. 자동차 거리가 20분 정도에 있는 J여고(선도학교)는 실용경제, 우리 학교는 간호의 기초를 열었고... 방과 후에 H고 학생들이 J여고에 가서 듣기도 하고, J여고 학생들이 H고에 와서 듣기도 했어요. 근데 어려운 점이, H고에서 J여고에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어떤 과목을 개설해 달라 해도 그쪽에서 사정상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하면 끝이에요.

- A부서 부장교사 면담 (2019. 7. 12.) -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학생들은 선택권 보장을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두 학교의 평가 시기가 다르고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과목은 발표 등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준비와 정교사 준비가 맞물려 시간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공동교육과정이 아니더라도 과정중심평가 등이 시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동교육과정에서 어려움은... 멀어서... 이동하는 시간이 많으니깐... 그리고 중요한 시험을 볼 때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시험 준비를 해야 할 시간에 멀리
가고 다른 준비를 해야 하니깐...

- W** 학생 면담 (2019. 7. 12.) -

2학기에는 J여자고등학교와 공동 개설에 마땅한 과목을 찾
지 못하였고 학생들이 이동하는 것을 싫어하여 다른 학교들의
문을 두드렸으나 평가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개설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공동교육과정은 옆 인근 학교와 연계하여 개설하지
만 역시 모든 과목을 개설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기계일반’, ‘프로그래밍’과 같은 학생들의 수
요가 있었고 교육청에서도 과목 개설을 공동교육과
정으로 연계 해보자는 시도가 있어 각 학교 교육과
정, 교무부장님들 협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기계
공고, 정보산업고에 ‘기계일반’, ‘프로그래밍’에 대
한 공동교육과정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학교에서 거절하였습니다.

- A부서 부장교사 면담 (2019. 10. 20.) -

(2) 블록타임 시간표 운영

2018년도 10차에 걸친 학생 선택과목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학생들의 공강 시간을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반
성을 하고자 H고는 선택 과목 이동 수업에 따라 A, B, C 그룹
의 이동 그룹 형태의 시간표를 배정하였다.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월, 화, 목요일 4-6교시를 블록타임으로 운영
하였다.

선택을 해서 움직여야 하니까.. 시간표를 몇 개 그룹
으로 묶지 않으면 시간표 자체를 짤 수가 없어요. 그
래서 1+2로 월, 화, 목은 블록타임으로 수업을 합니다.

- B부서 부장교사 면담 (2019. 7. 12.) -

블록 타임 시간표로 인해 교사들의 시간표 이동이 어렵고
특정 시간대에 수업이 몰려있어 교사들의 일과 중 적절한 공
강이 배치되지 못하다는 점이 교사들에게 문제점으로 인식되
었고, 학생들은 연강으로 인해 수업이 지루하고 힘들다는 의

견이 있었다. 한 H고 교사는 국가 교육과정의 선택과목의 단
위 수 등이 조정되어야 일선학교에서 시간표가 좀 더 원활히
조율될 수 있다고 하였다.

(3)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위한 각별한 노력

교육부는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에 대한
안내서를 연구학교와 선도학교에 배부하였다. 그러나 H고 교
사들이 보기에 이 자료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진로상담부에서 실시한 학생들의 진로희
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별 관련 학과, 학과별로 필요한
과목, 학과별로 필요한 인제상, 과목, 추천도서, 설치 대학,
졸업 후 진출 분야 등의 상세한 안내를 넣은 256쪽 분량의
‘진로맞춤형 과목선택 안내서’를 자체 제작하였다.

이 안내서는 첫 페이지에 학생들이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
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3개년 학업계획서를 세우고, 교과목 이
수 체크 리스트를 체크해봄으로써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적합
한 개별 교육과정을 계획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
되어 있다. 면담에 참여한 H고 학생들은 이 안내서가 진로와
관련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하고 있었다.

교육부에서 보내준 자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학과는
다른데, 거기에 필요한 교과목이 대동소이 다 비슷했
어요. 예를 들어 A라는 학과는 기하가 전혀 필요 없
는데 다른 자연계열과 마찬가지로 기하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 식이었지요. 학생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학생들이 어떤 과를 가고 싶으
면 실제로 들어야 할 현실적인 과목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국어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학과에 필요한 추천 도서 목록도 넣었어요. 이 책자
만드는 데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 A부서 부장교사 면담 (2019. 10. 20.) -

이 안내서에 제시된 60개의 대학 전공 학과 중 가정계열의
학과로는 식품조리학과, 의류의상학이 제시되어 있었고, 관련

교과로 기술·가정 교과(군)의 진로 선택과목인 가정과학이 기재되어 있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위해 제공되는 이와 같은 자료는 학생들의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줄 수 있다. H고의 ‘진로맞춤형 과목선택 안내서’ 개발은 타학교에서도 벤치마킹해야 할 사례로 보이며, 가정교과와 관련된 전공학문에 대한 이해와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또한 H고는 진로상담부를 중심으로 연간 다양한 진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었다(Table 5). 진로진학 상담을 효과적으로 위해 학생의 자발적 상담과 의무적 상담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이 결과를 진로상담교사가 학생 개인별 일지로 작성하고 있었다.

담임교사의 진로 상담 역량에 따라 교육과정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H고는 학생들의 선택 과목 신청에

앞서 자신이 다음 학년에 듣고자 하는 과목이 어떠한 과목이며 진로 선택에 따른 과목 설명을 듣고 과목 신청에 도움을 주고자 1,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2019년 7월에 과목박람회를 실시하였다.

과목박람회는 H고의 체육관에서 이루어졌다. 박람회 진행은 교육과정부에서 주관하였으며, 1학년과 2학년이 체육관에 모여 90분씩 교대로 각 과목별 부스로 향하여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과목과 진로 선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3개년 학업 계획서 작성 부스에서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Figure 1) 참고). 학생 면담 결과에 따르면 무엇보다 이 과목박람회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 선택에 필요한 과목과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Table 5. Examples of H high school's career education for 2019

Category	Detailed action plan	Number of times	Time (month)	Remark
Strengthening career advancement capabilities	Organization of career and vocational curriculum career education	Once a week	Year round	1 st grade
	Creating an Individual portfolio	Year round	Occasional	1 st grade
	Operation of the career advancement room	Occasional	Occasional	
	Posting a career newsletter (Dream Letter)	Year round	Year round	
	Standardization test conducted	3 times	(March, April)	
	Career experience day with mentor	1 time	1 st semester	1 st grade
	Career-finding activities	1 time	1 st semester	
Experience-based career education	Field job experience	1 time	1 st semester	
	Writing a career experience report - Visits to parents and workplaces - Volunteer job experience activities - Activities to visit universities that wish to support		(July~August)	Vacation assignments
	Support for special classes after the 3rd grade entrance examination - Career coaching, career experience, career special lectures, etc.		(December)	



Figure 1. Scenes of the H high school subject fair

과목에서 배울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과목 선택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과목박람회 준비하기 위해, 가르쳐보지 않은 교과까지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토대로 미리 공부할 해야 하는 점이 부담이 되었으며, 학생이 원하는 과목의 전공 교사가 없는 경우는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라. 고교학점제에 따른 수업과 평가

(1)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책임지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도 방안은 지속적으로 강구되어 왔다. H고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시작하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책임 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세 번째 연구 목표로 삼았다. 1회 고사 끝난 후 1회 고사와 수행평가 등을 바탕으로 교과별 미도달 예상 학생의 선정 기준과 그에 따른 책임 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과별 지도 학생을 선정하고, 과제를 부여하거나 야간 수업 등을 진행하였다.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 과제가 고교학점제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하는 내용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학교 목표로서 재고가 필요하다. H고에서도 이 연구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준 설정, 프로그램 실시 등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H고는 선택과목에 대한 이수/미이수 기준을 마련하였지만 미이수 학생에 대한 추가 이수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수/미이수 기준은 아직 교육부에도 없고, 공문에서 지시한대로 1회고사 성적을 가지고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도달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했어요. 어떤 선생님은 과제를 내주시고, 어떤 선생님은 방과 후에 남기기도 하고, 주말에 학교 나온 아이들도 있었어요. 아직 2회고사 성적이 안 나와서 그 결과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1회고사 성적만 가지고 이 학생이 미도달이 예상되니까 추가 프로그램을 투입해서 이 학생이 2회고사에는 도달이 되도록 해라는데, 참... 그걸 어떻게 예측하라는 건지... 선생님들께

이수/ 미이수 기준을 과목별로 만들어달라고 해서 취합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 B부서 부장교사 면담 (2019. 7. 12.) -

(2) 정기고사 운영 현황

여러 과목이 운영되면서 1회 고사, 2회 고사와 같은 정기고사의 경우 학생마다 치르는 시험 과목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시험 시간표 작성과 시험 감독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시험 시간표가 안 나와요. 2학년은 학생별로 시험 시간표가 다 다르잖아요. 혹시 대리 시험을 볼 수도 있으니까 수능처럼 책상위에 이름표 다 붙이고, 얼굴 사진대장 다 만들어서 ... (운영해요). 1년에 수능을 4번 보는 거나 다름없어요.

- B부서 부장교사 면담 (2019. 7. 12.) -

H고에서는 1학기에는 모든 학생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을 운영하고 시험 시간에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 선택과목 시험을 보게 하였다. 대기실에 학생들이 많아 감독교사 1명이 체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2학기에는 학생들이 교실에 대기하다가 시험실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

H고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수업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으며 주제 통합 수업도 실시하였다. 하지만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책임지도는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힘든 점이 파악되었고, 선택과목을 대상으로 한 정기고사 운영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3.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인식과 요구

H고의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선택과목 결정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5점 리커트 문항의 응답 결과는 각각 <Table 6>, <Table 7>, <Table 8>과 같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교사, 학부모, 학생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았을 때 1학년보다 2학년의 인식 수준이 더 낮고 편차도 0.3으로 더 작게 나타났다. 설문 결과만

Table 6. Awareness by respondents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wareness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M(SD)			
	1 st grade	2 nd grade	Teachers	Parents
1 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	3.71 (1.02)	3.49 (0.71)	4.41 (0.52)	3.12 (0.91)
2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72 (1.02)	3.00 (0.00)	4.04 (0.48)	3.53 (0.71)
3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73 (1.01)	3.00 (0.00)	4.00 (0.49)	3.53 (0.84)
4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79 (1.14)	3.54 (0.68)	4.00 (0.49)	3.42 (0.89)
5 고교학점제는 창의 융합 인재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73 (1.12)	3.00 (0.00)	3.80 (0.72)	3.19 (0.86)
6 고교학점제는 공교육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3.64 (1.14)	3.00 (0.00)	3.80 (0.72)	3.13 (0.91)
7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3.72 (1.11)	2.04 (1.44)	3.61 (0.68)	3.14 (0.82)
8 나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찬성한다.	3.44 (1.02)	3.00 (0.00)	3.52 (1.23)	3.03 (0.92)
Total mean	3.72 (0.86)	3.00 (0.30)	3.92 (0.61)	3.24 (0.79)

Table 7.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n elective decision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n elective decision	M(SD)			
	1 st grade	2 nd grade	Teachers	Parents
1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반영하여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	4.24 (0.81)	4.13 (1.02)	4.13 (0.38)	4.12 (0.61)
2 대학 입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	4.02 (0.82)	4.06 (1.09)	4.14 (0.62)	4.13 (0.62)
3 소수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이라도 개설하는 것	3.87 (0.92)	3.63 (1.04)	3.61 (0.89)	3.79 (0.82)
4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과목의 경우, 다른 방법 (예: 온라인 교육과정이나 다른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운영 등)을 통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99 (0.81)	3.62 (1.03)	3.61 (0.89)	3.78 (0.81)
5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것	4.14 (0.92)	3.94 (1.02)	4.13 (0.44)	4.42 (0.63)
6 과목 선택을 위한 개별 상담을 제공하는 것	4.07 (0.87)	3.87 (1.02)	4.32 (0.51)	4.41 (0.63)
7 고교학점제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제공하는 것	4.23 (0.82)	3.97 (1.02)	4.13 (0.62)	4.31 (0.64)
8 대학 입시와 관련한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것	4.18 (0.76)	4.02 (1.01)	4.13 (0.62)	4.47 (0.64)
9 학생의 흥미와 요구를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	4.23 (0.94)	3.91 (1.02)	4.11 (0.42)	4.36 (0.63)
10 내가(자녀가, 학생이) 선택한 과목의 수업 내용이 그 기대와 일치하는 것	4.13 (0.92)	3.91 (1.02)	4.13 (0.39)	4.36 (0.67)

Table 8. Considerations in elective decision (by rank)

Considerations in elective decision	N(%)								
	1 st grade			2 nd grade			Parents		
	1st	2nd	3rd	1st	2nd	3rd	1st	2nd	3rd
1 대학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	27 (9.8)	14 (5.1)	13 (4.7)	31 (21.5)	4 (2.8)	5 (3.5)	12 (42.9)	5 (17.9)	7 (25.0)
2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과목	3 (1.1)	13 (4.7)	6 (2.2)	1 (0.7)	9 (6.3)	4 (2.8)	2 (7.1)	2 (7.1)	4 (14.3)
3 나의 진로 개발에 도움을 주는 과목	11 (4.0)	29 (10.5)	27 (9.8)	6 (4.2)	15 (10.4)	8 (5.6)	4 (14.3)	9 (32.1)	8 (28.6)
4 나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과목	25 (9.1)	29 (10.5)	20 (7.2)	6 (4.2)	14 (9.7)	11 (7.6)	9 (32.1)	6 (21.4)	3 (10.7)
5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 부담이 적은 과목	0 (0)	2 (0.7)	3 (1.1)	0 (0)	1 (0.7)	1 (0.7)	0 (0.0)	2 (7.1)	1 (3.6)
6 내신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	2 (0.7)	15 (5.4)	22 (8.0)	2 (1.4)	3 (2.1)	12 (8.3)	0 (0.0)	3 (10.7)	3 (10.7)
7 수업을 듣고 싶은 교사의 과목	0 (0)	2 (0.7)	13 (4.7)	0 (0)	2 (1.4)	5 (3.5)	1 (3.6)	1 (3.6)	2 (7.1)
8 기타	0 (0)	0 (0)	0 (0)	2 (1.4)	0 (0)	2 (1.4)	0 (0.0)	0 (0.0)	0 (0.0)

으로 그 이유를 추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고교학점제에 대한 안내와 사전 준비로 그 기대감이 높은 1학년에 비해, 실제로 자신들의 선택에 따른 교육과정을 경험해 본 2학년들의 기대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에 대한 항목은 평균이 2점으로 점수는 가장 낮았으나 편차는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학생에 따라 고교학점제를 통한 입시 윤희리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2학년 학생들이 1학년보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온 설문 결과에 대해 H고의 한 교사는 2학년이 입시를 더 가까이 앞두고 있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2학년 학생들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불신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학교나 교육부에서 소인수 교육과정에서 또는 등급이 따기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도 불리하지 않다고 하여도 이런 교육과정으로 졸업한 선배들의 경험이 없으니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1학년은 고교학점제의 선택 과목이 수요조사만 있었으며 2학년의 경우는 이동 수

업을 하지만 3학년에 교과 선택이 더 많아지는 내년에 학생들의 인식이 어떨지가 더 정확한 결과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B부서 부장교사 면담 (2019. 10. 20.) -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것’과 ‘대학 입시와 관련한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학부모들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에게 대학 입시에 대한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평균이 가장 낮은 것은 ‘소수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이라도 개설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것’과 ‘대학 입시와 관련한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전반적으로 1학년이 2학년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항목들의 평균이 높았고, 1학년과 2학년의 평균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소수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이라도 개설하는 것’이었다.

가. 학생의 H고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인식 및 요구

H고 학생들은 H고의 고교학점제 운영에서 만족하는 점으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고,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폭이 넓다는 고교학점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세부 의견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말하는 ‘내가 원하는 교과’란 대학 진학에 필요한 교과를 의미하고 이었다. 이 외에 교사들의 성의 있는 진로 상담, 여러 차례의 수요 조사 절차 등과 같이 H고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1학년>

- 내가 원하는 교과,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다. (17건)
-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좋다. (7건)
- 체계적인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1건)
- 학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진로 진학을 상담해 주신다. (5건)
- 여러 차례의(세심한) 수요조사에 만족 (2건)
-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1건)
- 대학에 갈 때 필요한 수업만 시간낭비 없이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어 정말 좋다. (1건)

<2학년>

-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것(10건)
- 자신의 진로 희망에 관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좋았다. (6건)
-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들을 들을 수 있다. (3건)
-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된다. (5건)
- 과목을 선택하는 데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점(1건)
- 체계적이다.(1건)
- 옆 학교와 협력하는 점이 좋다.(1건)
- H고 1학년, 2학년 설문 주관식 응답내용 일부 발췌 -

반면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하여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으로는 고교학점제 관련 정보 부족, 소인수 과목의 폐강으로 과목 수강을 하지 못하는 점, 한정된 과목 개설,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정책, 과목 설명 부족, 과목 변경의 어려움, 내신 성적 받기 어려움, 수요 조사 시기와 절차의 불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학년>

- 선택형 교육과정의 운영 자체에 미흡하고 정보가 부족함. (10건)
- 완전한 선택을 보장하지 못한다(소인수 과목 미개설 등) (10건)
- 과목의 선택지가 생각보다 너무 좁다. (7건)
- 아직 진로가 확실하지 않은 학생들은 선택할 때 꿈을 찾는 게 아니라 꿈을 정해야 한다는 사실에 쫓기는 기분이다. (4건)
- 수요조사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3건)
- 학생 수가 적은 과목은 내신이 불리해진다. (1건)
- 다양하고 폭넓은 진로 체험 부족 (1건)

<2학년>

- 진로에 맞는 과목 무엇인지 어떤 과목을 들어야할지 모르겠음. 제도와 과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10건)
- 소수 과목 희망자들은 과목개설이 어려워 피해를 본다. (2건)
- 과목별로 내신 성적의 유·불리가 있어 불공평하다(2건) 발생한다.(2건)
- 이동 수업을 위한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 (2건)
-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1건)
- H고 1학년, 2학년 설문 주관식 응답내용 일부 발췌 -

2학년 학생들은 입시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미흡한 점으로 1학년과 마찬가지로 설명이나 안내 부족, 소인수 과목의 폐강을 말하였고, 등급을 받는 것의 어려움도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이동수업의 귀찮음, 학생들의 몰이해,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목 선택, 개별 상담 부족 등도 언급하였다.

한편 H고의 W학생은 면담 과정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취지와 내용에 대해 알고 있으나 시행에 있어 우려되는 점을 ‘교육의 질’과 관련하여서도 언급하였다.

선생님들이 기존에 하던 교육 방식이 있을 텐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그로 인해 (선생님들이 원래 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 W** 학생 면담(2019. 7. 12.) -

나. 학부모의 H고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인식 및 요구

H고 학부모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는 학생의 적성을 살리는 교육이라는 점이 가장 많았다.

- 고교에서부터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따라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6건)
-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내신에서 반영이 된다면 좋은 제도일 것입니다.
- 관심 분야에 자발적인 동참
- H고 학부모 설문 주관식 응답내용 일부 발췌 -

H고 학부모들이 고교학점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진로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대입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제도가 완전하지 않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 고교학점제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 (3건)
- 아직 진로가 확실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것은 무리인 듯합니다. (2건)
- 대입에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 같다.
-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도입하지 않는 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아직 선생님이나 시스템이 구축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은 시기상조이다. 괜한 학생들만 피해자다. 제발 교육을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긴 안목으로 보지 않는 형식상 교육 모두가 피해자다.
- H고 학부모 설문 주관식 응답내용 일부 발췌 -

학부모들은 수업의 질과 과목 등급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학교에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의 개별적인 진로와 학습 결과, 그리고 대학의 입시 제도에 따라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별달리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교육부의 지침인 진로 개발의 측면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이에 H고 학부모들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가 온라인 과목을 개설해주고, 담임교사가 과목과 관련해서 충분한 상담과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며,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자녀들의 과목 선택 결과에 대한 개별 알림 서비스 등을 건의사항으로 제안하였다.

- 학생들이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3건)
- 원하는 모든 과목이 개설이 안 될 경우 온라인 과정이라도 개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건)
- 아이가 선택한 수업에 대해 학교 측 신청결과와 통보 및 과목별 신청현황, 담임선생님과 진로상담 선생님의 의견 등을 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2건)
- 고교학점제를 운영코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학교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안내 후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 학생 개인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파악한 후 책임감 있는 실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담임교사가 더 많은 관심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H고 학부모 설문 주관식 응답내용 일부 발췌 -

다. 교사의 H고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인식 및 요구

고교학점제에 대한 H고 교사들의 찬성 의견으로는 ‘자기 주도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사회가 될 것이므로’라는 응답이 있었고, 반대 의견으로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음’이 있었다. H고 교사들이 인식하기에 고교학점제 운영에서 잘 하고 있는 점은 교사들 간의 협조가 잘 되고 다양한 과목 개설, 소인수 과목에 대한 개설 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와 각종 자료 제공, 학생 안내를 잘 함.
- 소수 선택 과목 개설

- 담임 및 교과 교사 협조, 교사들의 협조가 잘됨
- 타학교와 협력하고, 아이들을 위해 여러 과목을 개설하는 것
- 시설 마련
- 학생들의 선택과목 요구 반영
 - H고 교사 설문 주관식 응답내용 일부 발췌 -

H고 교사들이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학생의 공강 시간 활용, 타학교 협력, 학교 시설 부족, 소인수 과목 개설의 현실적 어려움 등이었다. 또한 연구학교 담당교사는 학부모들의 질문과 요구에 미래를 예측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작년의 경우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게 되니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과목 등급을 제대로 못 받는데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것 맞는가?”와 같은 학부모의 질문을 받았고, 그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강조하는 진학이 아닌 진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원하는 과목을 듣고 등급을 못 받는 것이 과연 유리한지는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B부서 부장교사 면담 (2019. 10. 20.) -

전반적으로 H고는 연구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물적, 인적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Ahn(2017)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고교 내신 절대 평가 도입, 고교 서열화 해소 및 내신 절대평가 도입, 교사의 신분상 변화에 대한 불안정성 관련 대책 마련 등의 선결 과제가 필요하며, 적어도 정책을 시행하려면 단계적으로 선결조건을 먼저 해결하고 완성된 형태로 단번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H고 뿐만 아니라 현재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학교들이 관련 규정, 인적, 물적 자원 등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교학점제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이 제도가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를 넘어서 우리나라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시도단위 교육청에서 단위학교 실정에 맞는 개별화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V.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가정과 교육공동체의 준비 방향

위의 H고의 사례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렇다면 이를 개별 교과과의 운영 상황으로 치환해 볼 때, 가정과 교육공동체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가정교과는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으며 생활과학이라는 넓은 범주의 학문이나 진로계열과 관련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시 부담이 거의 없는 교과이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폭이 넓고 평가에 대한 부담이 적어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과이기도 하다. 또한 가정교과는 전통적으로 인성 교육을 다루어왔기에, 수업을 통해 미래사회변화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간 소외 및 비인간화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반면 교육과정 편제상 교과(군) 필수 이수단위가 16으로 기준 시수 자체가 작고, 교육과정 내용이 전통적인 가정학의 내용학에서 벗어나지 않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과로 인식되기 못하고 있다. 또한 가정과 교육공동체 주체간 네트워크가 미약하며 가정과 교과 철학을 지지하고 교육과정 개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치적·정책적 파워가 약하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에게 가정과 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공동 행동이 아직은 미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발맞추어 가정교과 관련 세부 교과를 신설하는 등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통해 교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가정교과는 교과 내용이 삶의 맥락과 연계되기 때문에 다른 교과와 융복합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 용이하다. 온라인 원격수업의 보편화로 인해 해당학교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다양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해졌다.

현재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가정교과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점은, 과거에 비해 파격적으로 확대된 교과 선택권을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입시 과목 중심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카스트와 같이 대학 서열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이 우선 살아

남을 것이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이미 교사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시수가 적은 군소교과 전공 교사들의 정원부터 줄이게 될 것이다. 입시와 관련이 없더라도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의해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교양 과목(군) 내에서도,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학문 트렌드를 앞세워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정보’, ‘지식재산일반’, 교양의 성격을 갖는 ‘교육학’, ‘심리학’ 등의 인기 교과와 필수 이수단위를 공유해야 하는 실정으로, 기술·가정 교과는 과거와 달리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에, 가정과 교육공동체의 각 주체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하여 새로운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1. 가정과 교사의 준비 방향

첫째, 가정과 교사들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 이에 따른 수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Lee(2017)는 입시중심 교육현장에서 과목 선택권은 큰 의미가 없으며, 선택권보다는 제대로 된 배움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였다. 결국 고교학점제에서의 교과 경쟁력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수업을 제공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가정과 교사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것을 가르친다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각자가 교육 목적을 새롭게 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타 교과 교사와 연대하여 주제 통합 수업을 개발하고 실행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교사들의 자발적인 전문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H고의 사례에서 보듯이 학생들이 가정과 관련된 교과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과목 설명회나 교육과정 안내서 등을 통해서 가정교과의 철학과 목적, 내용 등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축적된 실질적인 수업 사례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과를 안내하여 학생들이 교과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교과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셋째, Covid-19 등 예측할 수 없는 환경변화로 인해 온라인 학습의 일상화가 실현되었다. 앞으로 온라인 수업 환경이 보편화 될 것에 대비하여 물리적 거리를 넘어 가정과 교육과정

을 확대하기 위해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개설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교실온달 사이트를 통해 전국 17개 교육청에 소속된 교사들이 강의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가사실업계 전문교과를 적극적으로 개설하거나 가정 계열의 과목 신설 등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 가정교과 관련한 선택지를 확대해야 한다. Ju, Park, Baek, Yu와 Han(2021)도 선행연구를 통해 전문가 숙의를 통해 가정교과 선택교과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내적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하고 가정계열의 다양한 선택교과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과목 신설의 경우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 교사 차원에서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미 개발된 교과서가 있다면 교과 신설의 여지가 충분하다. 예를 들면 2021년 충북교육청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고시외과목으로 승인받은 ‘식품안전과 건강’ 과목을 단위학교에서 기술·가정 교과(군) 선택 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다. 가정교사가 수업을 통해 가사계열의 전문교과 개설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여 학교교육과정 회의에서 가정 관련 과목이 교육과정 선택지에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2. 가정과 교사 공동체 및 학회의 준비 방향

첫째, 고교학점제가 의미를 가지려면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수업의 질이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 교육청 및 교원단체에서 운영하는 가정과 교과연구회가 지역 교육청 단위의 교과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넘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가정교과 연구회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가정 교과 모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학교 현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및 교사 수업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청과 협력하여 가정교과영역에서 학습자의 흥미와 진로에 적합한 교과서를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Park(2017), Kim과 Heo(2021)가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것처럼 가정계열의 분화를 통해 가정과의 선택과목을 다양화 전문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 언급한 ‘식품안전과 건강’ 외에 의생활, 주생활, 소비분야, 아동 가족 분야 등 가정계열의 다른 분야에서도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을 시도해야 한다.

셋째, 가정학을 근간으로 하는 생활과학 대학의 전문가와 사범대의 가정교육과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가정교과의 발전과 생활과학 대학의 발전은 상호 영향을 미친다. 생활과학 대학은 중등학교의 가정과 교육과정 발전에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교육과 전공자들은 가정교과 내용학 영역의 학문적 발전을 추적해야 한다. 양자가 학회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궁극적으로 가정학 영역의 새로운 지식을 발굴하여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의미 있게 접목하기 위한 공동의 지적협력을 해야 한다.

3. 가정교과 교원양성기관의 준비 방향

첫째,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 별도로 교사 정원을 늘리지 않는 한, 예비교사들이 현장에서 다교과를 지도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이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의 방향을 살피면서 이에 발맞추어 예비교사가 적합한 역량을 갖추도록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2020년 12월 ‘미래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심의·의결한 이래 교원양성 규모 적정화 및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을 논의해왔다. 최근 한 교육매체의 기사(Edupress, 2021. 6. 17)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의 다교과 지도 역량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공청회를 거쳐 2021년 10월 새로운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가정과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 등에서는 초·중·고 연계 교육과정 및 다교과 융합 교육과정 등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기초 연구를 실행하고, 가정과 예비교사가 고교학점제 및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에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자격표시과목이 유연화되고 부·복수 전공제도가 활성화 될 것을 고려하여, 학과의 교육과정을 혁신하여 부전공 및 복수 전공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장 교사의 고교학점제 실행을 지원하고 전문성 향상을 돕기 위해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1정 연수 등 현장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과 양질의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MOOC, 온라인 연수원 강좌 등으로 개설하여 현장교사가 필요할 때마다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원고는 가정과 교육에서 고교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해 가정과 교육공동체의 각 주체별로 준비해야 할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는 미래 상황을 유추하여 나온 결론이기에 고교학점제가 현실이 되었을 때는 이미 최적의 대안이 아닐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고교학점제의 운영 양상은 개별학교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에 가정과교육활동이 실행되는 현상을 생태계와 같이 유기적인 것으로 보고, 그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떤 상호 작용을 통해 발전하는지 질적으로 알아보는 실험연구들이 필요하다.

교육공동체의 개념화에 대한 Park과 Lee(2016)은 행위자의 마음을 동원할 수 있는 ‘개념’이 교육 공동체 구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교육공동체의 개념이 행위자들의 마음 역능에 부합하는 합리성, 합정성, 합의성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가정과 교육공동체를 주어로 하여 재진술한다면 가정과 교육공동체가 형성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육에 몸담고 있는 교사, 교수, 연구자들이 합리적이고, 감정과 의지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나 비전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믿음과 계속 스스로에게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성공들이 공유된다면 가정과 교육공동체는 공동체가 가져올 수 있는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측면을 극복하고,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서 자립적이고 건강한 어른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H고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통해 수많은 고등학교 중 한 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인식조사 등의 양적 연구와 문헌 분석 및 면담 등의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실제 교육과정 전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 학교의 사례를 통해 가정교육과의 미래를 진단하는 것은 무모한 일일 수 있으나, 일부 조각이 전체와 비슷한 기하학적 형태를 갖는 프랙탈(fractal)처럼, 한 학교의 사례 속

에서 전체에서 드러날 보편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고교학점제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변화할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침체된 공교육에 활기를 불어넣고 가정과 교육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에 희망을 걸어본다.

참고문헌

- Ahn, S. J. (2017). 고교학점제 도입과 고교평가 혁신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innovation in high school evaluation]. *Education Review*, (40), 76-98.
- Gu, J. O., & Nangung, J. (2011). 학점제 도입 방안 [Plans to introduce a high school credit system]. *KEDI Position Paper*, 8(5), 1-22.
- Han, H. (2011). A Study on the possibilities of student-tailored high school curriculum -Focusing on the ontario secondary curriculum in Canada-.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1(2), 75-99.
- Han, J., Kim, S., Park, B., & Lee, K. (2019).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강원 중소도시 공립 및 읍면지역 고등학교 [Case study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research school: Focusing on high schools located at small town in Kangwon province]. *KICE*, CRC 2019-2-4.
- Han, S. J. (2018). *Communalization. -Conceptualization and examples for the expansion of ECO-*. Ulsan: Ulsan University Press.
- Hong, H. J. (2018). Understanding and Practical Desig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8(1), 699-724.
- Jang, J. H. (2021, June 17). [단독] 초등교사 융합전공 신설, 중등 복수자격가산점 추진 .. 교원양성체제개편 논의. *Edupress*. Retrieved from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7552>
- Jin, Y. H. (2017). 고교학점제와 선택형 교육과정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elective curriculum]. *Education Review*, *교육정책토론회집*, 148-166.
- Ju, S. E., Park, M. J., Baek, M. K., Yu, N. S., & Han, J. (2021). Exploration of the direction of innovation in the high school Home Economics elective course curriculum through deliberation.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7(2), 107-134.
- Kim, I. Y., Hong, S., Choi, M. K., & Kwon, H. N. (2019). Teacher's perceptions and needs on implement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6), 1003-1024.
- Kim, J. B. (2017). Basic discussions to introduce a high school credit system. *Education Review*, 40, 10-43.
- Kim, J. B., Kim, S. Y., Ham, Y. G., & Han, J. Y. (2017).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생평가 재구조화 방안 [A plan to restructure curriculum and student evalu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Seoul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1-168.
- Kim, L., & Seo, K. (2018). Curriculum reform through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6(1), 113-138.
- Kim, N. E., & Heo, Y. S. (2021). Exploring the direction of revision home economics curriculum and the selective subject system for the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7), 621-637.
- Kwon, Y., & Lim, Y. (2020). Elective course status and need related to high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2(2), 179-192. doi:10.19031/jkheea.2020.06.32.2.179
- Lee, H. (2017). 고교학점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의 모색 [Critical consideration and search for alternatives to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Education Review*, (40), 52-76.
- Lee, K. (2018). Teacher's perceptions and needs on implement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2), 543-567.
- Lee, K., & Park, C. (2020). The evaluation and prospect of pilot schools for high school credit syste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 1233-1253. doi:10.22251/jlcci.2020.20.17.1233
- Lee, S., & Paik, S. (2019). An exploration for the possibility of broadening a range of high school electives: considering current subjects taught by teachers and their perceptions of teaching additional subject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6(2), 49-73.
- Lim, K. K. (2017). 고교학점제 운영의 해외사례: 미국, 독일, 프랑스

- 스 사례를 중심으로. [Overseas examples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US, Germany and France]. *Education Review*, *교육정책토론회집*, 77-128.
- Lim, Y. J. (2018). Case study of organization and operation expansion in general high school technology course.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ducation*, 43(2), 97-113.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 December 10).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A plan to reform the admission system and system for the advancement of high schools]. Seoul: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15). *Elementary · Secondary School Curriculum (Notification No. 2015-74)*. Sejong: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21).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2021. 2. 16)*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pla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Sejong: Author.
- Park, C., & Lee, S. (2016). Critical analysis of the educational community discussion: Focusing on the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6(1), 45-69.
- Park, M. J. (2017). Exploration on the organization of high school home economics selective curriculum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5(5), 539-553. doi:10.6115/fer.2017.039
- Park, M. J., Lim, Y., Kwon, Y., & Lee, K. (2020).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achers' perception of participation in school curriculum organization and high school credit system.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2(1), 15-34. doi:10.19031/jkheea.2020.03.32.1.15
- Seo, B. (2020). The introduc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change in high schools.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30(3), 55-79.
- Woo, W. J. (2019a). A study on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and settlement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analyzing the impact of prerequisites, external environment, and operational mod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ducators*, 19(10), 311-330.
- Woo, W. J. (2019b). A survey on the perceptions of subject teachers on the introduc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vocational high school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ducators*, 44(2), 65-85.
- Yu, N. S., Baek, M. K., Ju, S., Han, J., & Park, M. J. (2021). Structuralization of elective courses in high school home economics(subject group) in preparation for the next curriculum.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3(1), 129-149.

<국문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사례를 통해 가정과 교육공동체에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한 강원도 지역 H 고등학교의 운영 과정을 5개월간 모니터링 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여 교육과정 운영 내용을 파악하였다. H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가정과 교육공동체의 준비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과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매력적이고 의미 있는 가정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업과 평가를 개선하고,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가정교과 영역의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정과 교사 공동체 및 관련 학회는 지역의 가정교과 연구회를 하나로 연결하는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수업 연구 결과를 확산하는 채널로 삼을 필요가 있다. 가정교과 교원양성기관은 변화하는 교원양성정책에 발맞추어 예비교사가 현장에서 다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현장교사 재교육을 위한 질 높은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논문접수일자: 2020년 12월 21일, 논문심사일자: 2021년 1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21년 6월 23일